

스탠리 하우어워스의 습관에 관한 이해

김희준 (송실대학교, 강사)

- I. 들어가는 말
- II. 하우어워스의 덕 윤리에서 습관의 의미와 역할
 - 1. 아리스토텔레스와 습관
 - 2. 아퀴나스와 습관화
 - 3. 소망의 습관
- III. 소망의 습관으로 살아가기
- I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4.60.06>

• ABSTRACT •

Stanley Hauerwas's Understanding of Habit

Kim, Heejun (Lecturer, Soongsi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Stanley Hauerwas's virtue ethics, particularly his concept of habit, focusing on its reception and potential application in Korean academia. Hauerwas has developed Christian virtue ethics based on character, narrative, and communal tradition, influenced by Aristotle, Thomas Aquinas, and Alasdair MacIntyre. His ethics emphasizes the formation of ethical life through concrete community stories and practices rather than abstract principles, thereby critiquing modern enlightenment ethical approaches based on individualism and rationalism. This research analyzes how Hauerwas's concept of habit in virtue ethics can contribute to modern Christian ethics and explores how it can be actualized within the practices of faith communities. Through this investigation, this paper proposes the need for broader discussion and research on virtue ethics in Korean theological discourse.

Key words: Stanley Hauerwas, Virtue Ethic, Habit, Aristotle, Thomas Aquinas, Hope

I. 들어가며

스탠리 하우어워스는 현대 기독교 윤리학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학자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다.¹⁾ 그의 신학과 윤리학은 기독교인의 윤리적 삶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성되는 성품(character)의 관점에서 풀이한다는 점에서 ‘성품의 윤리’ 및 ‘공동체 윤리’ 등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하우어워스는 윤리적 삶이 추상적인 원칙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공동체의 이야기와 실천을 통해 형성된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현대 사회에서 개인주의와 합리주의에 기반한 근대의 계몽주의적 윤리적 접근을 비판한다. 이러한 하우어워스의 성품과 공동체에 집중하는 윤리적 관점은 한국의 신학적 담론에서도 점차 주목받고 있으며, 그의 연구작업을 한국적 맥락에서 연구하고 적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²⁾ 특히 하우어

-
- 1) 예를 들어, Time 지는 2001년 하우어워스를 “미국 최고의 신학자”로 선정했으며(*Time*, Sept. 17, 2001), R.R. Reno는 그를 “하우어워스는 북미 맥락에서 가장 일관성 있고 영향력 있는 정치신학을 명확히 표현했다.”라고 평가했다. R. R. Reno, “Stanley Hauerwas,” in *The Wiley Blackwell Companion to Political Theology*, 2nd edition, ed. William T. Cavanaugh and Peter Manley Scott (Wiley Blackwell, 2019), 306-319.
 - 2) 이 정도가 하우어워스의 신학적 윤리학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와 연구 방향이다. 이 논문의 방향과는 다르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지금껏 한국적 맥락에서 하우어워스를 연구하거나 읽을 때 제기할 문제는 과연 우리가 ‘관용의 원칙’(The Principle of Charity)에 입각하여 그의 신학을 제대로 이해하려 노력했는가 하는 점이다. 관용의 원칙은 어떤 사상가의 관점을 비판하기 전에 가장 강력한 형태로 이해하려고 시도하며, 결보기의 난점이나 모순점을 지적하기에 앞서 그 사상을 진정으로 이해하려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하우어워스 신학에 대한 우리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1) 하우어워스의 신학을 근본적으로 비판하기에 앞서 가장 설득력 있는 형태로 이해하려 노력했는가? (2) 표면적인 난점이나 모순을 지적하기 전에 하우어워스를 진정으로 이해하려 했는가? (3) 명백한 모순점이 발견되었을 때, 이를 하우어워스의 관점에서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시도가 이루어졌는가? 하우어워스 신학의 특수성과 난해함을 고려할 때, 이러한 관용의 원칙에 입각한 해석학적 노력은 그의 사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 필수적이라 하겠다. 관용의 법칙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Donald Davidson: Principle of Charity,”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http://plato.stanford.edu/en->

워스의 윤리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덕 윤리와 형성에 대한 연구들은 앞서 언급한 근대 자유주의 윤리학에 대한 대안으로 주목받아 왔다. 하우어워스의 덕 윤리는 아리스토텔레스, 토마스 아퀴나스, 알래스테어 매킨타이어 등의 영향 아래 성품, 서사, 공동체의 전통에 집중하면서, 동시에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적 덕 윤리를 발전시켜왔다. 본 연구는 하우어워스의 덕 윤리, 특히 그의 습관(habit)개념에 초점을 맞추어 그의 윤리학이 가진 실천적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 학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하우어워스의 덕 윤리에 대한 연구들은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어 왔다. 첫째, 문시영은 하우어워스의 덕 윤리를 성품 형성과 고통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분석한다. 그는 하우어워스가 “통제할 수 없음” 속에서 ‘답 없이 살아가기’를 통해 예수 내러티브에 충실한 신앙인의 덕을 실천하도록 요구한다³⁾고 평가한다. 또한 하우어워스의 덕 윤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인 됨을 추구해야 하며, 교회는 그리스도인 됨을 위한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고 그의 덕 윤리 이해를 소개하며 발전적 가능성을 제안한다.⁴⁾ 특히 소위 공공신학자들(제임스 거스타프슨과 맥스 스택하우스 등)이 제기한 ‘분리주의적 경향’에 주목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문시영은 하우어워스의 성품에 기반한 덕 윤리를 ‘사회적 영성’의 차원으로 확장

tries/davidson/, 최종접속일 2024년 12월 10일; “The Principle of Charity,” *Lander University Website*, <http://philosophy.lander.edu/oriental/charity.html>, 최종접속일 2024년 12월 10일; Donald Davidson, “Three Varieties of Knowledge,” in *Subjective, Intersubjective, Objective: Philosophical Essay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205-20; Daniel C. Dennett, “Mid-term Examination,” in *The Intentional Stance* (Boston: MIT Press, 1987), 339-50.

3) 문시영, “고통의 문제에 대한 덕 윤리의 통찰 - 하우어워스를 중심으로,” 『장신논단』 52.5 (2020), 131-152.

4) 문시영, “성품의 함양에 관한 덕 윤리의 통찰 - 하우어워스를 중심으로,” 『신학과 사회』 35(2021), 157-158.

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번영신학을 극복하고 복음을 재발견하는 과정에서 하우어워스의 성품에 관한 통찰이 주요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⁵⁾

둘째, 전희준은 하우어워스의 덕 윤리를 조나단 에드워즈의 덕 윤리와 비교하면서 하우어워스의 윤리학에 대한 비평적 논의를 전개한다. 이 연구는 하우어워스가 성품 윤리를 통해 성화론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점을 소개하며, 하우어워스에게 있어서 성화는 신비한 과정이 아니라 실제 믿음과 행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을 밝힌다. 성화 과정에서 행동의 역할을 자아 형성의 수단으로 보고, 예수 내러티브에 충실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배우는 것이 성품 형성에 필수적이라는 하우어워스의 윤리학을 소개한다. 하지만 전희준은, 에드워즈와 비교해서 하우어워스가 은혜의 역할에 대한 강조와 성품 형성 과정에서 은혜의 역할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점 등을 지적하며 하우어워스 윤리학의 한계를 짚어내고 있다. 그에 따르면 하우어워스는 “은혜의 역할을 충분히 강조하지 않으며”, 특히 “중생한 신자만이 참된 미덕의 소유자가 가능하다”는 에드워즈의 주장과 같은 신앙적 통찰이 결여되어 있다.⁶⁾ 이것은 하우어워스의 덕 윤리가 가진 실천적 강조가 오히려 은혜의 우선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다.

셋째, 최용성과 김혜성은 하우어워스의 덕 윤리가 가진 분파주의적 경향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하우어워스가 “교회와 세상 사이의 구분을 강조하고, 공적 영역과 이슈에 대해서 제한적이며, 세상과의 분리를 의도하지는 않지만 세상 안으로 들어가 다른 공적 주체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결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⁷⁾ 이들은 하우어워스가 교회를 하나님 나라

5) 위의 논문, 158-9.

6) 전희준,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스탠리 하우어워스와 조나단 에드워즈의 덕 윤리에서 은혜의 역할 비교,” 『역사신학논총』44(2024), 241.

7) 최용성·김혜성, “스탠리 하우어워스의 덕윤리학과 그 성취와 한계,” 『철학연구』154(2020), 252.

의 서사를 살아가는 특별한 공동체로 이해하면서 세상과는 구별되는 언어와 삶의 방식을 강조하는 것을 설명하며, 교회 공동체의 이야기를 통해서만 진정한 도덕적 성숙이 가능하다고 보는 점 등을 소개한 후 이러한 입장은 세속 윤리와의 대화를 어렵게 만든다며 하우어워스의 윤리학, 특히 그의 덕 윤리의 한계를 짚는다. 이들은 하우어워스가 스태하우스와 같은 공공 신학자들을 비판하면서, 그들의 보편적 에토스의 추구함이 오히려 교회의 고유한 정체성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함을 지적한다.⁸⁾ 결과적으로 하우어워스의 윤리학은 세상과의 소통보다는 순수한 교회 정체성의 보존을 강조하는 특수한 교회공동체 윤리에 머무르게 된다는 것이 이들의 비판이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하우어워스의 덕 윤리가 가진 특징과 한계를 다각도로 조명하고 있다. 또한 이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하우어워스 윤리학의 공동체적 특성, 서사의 중요성, 그리고 성품 형성의 과정 등에 주목하며 그와 연결된 다른 사상가들, 즉, 아리스토텔레스, 아퀴나스, 그리고 매킨타이어 등을 소개하며 그의 주장을 깊이 있게 탐구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주로 그의 초기 저작인 『성품과 그리스도인의 삶』(*Character and the Christian Life*, 1975, 2nd ed. 1984)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며 시간이 흐르면서 하우어워스가 발전시킨 자신의 덕 윤리의 새로운 측면들과 강조점들이 충분히 소개 내지는 해설 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특히, 하우어워스 덕 윤리의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인 ‘습관’과 ‘소망의 덕’에 대한 그의 독특한 이해를 충분히 조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자 하우어워스가 쓴 습관에 대한 논의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소망의 덕에 대한 개념이 하우어워스의 덕 윤리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더 풍성하게 하는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하우

8) 위의 논문, 250-51.

어워스에게 있어 소망은 단순히 여러 덕목 중 하나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성품 형성과 윤리적 삶의 핵심을 이루는 요소이다. 그는 소망을 통해 기독교 윤리의 종말론적 특성을 강조하며, 동시에 현재의 삶 속에서 이 덕을 실천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특히 하우어워스는 소망의 덕을 통해 개인의 성품 형성과 교회 공동체의 역할을 연결시키며, 이를 통해 그의 덕 윤리가 가진 독특한 신학적 특성을 더욱 선명히 드러낸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우어워스 윤리학에 대한 더욱 포괄적인 이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대 기독교 윤리학에서 간과하기 쉬운 매일의 습관과 소망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연구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의 윤리적 도전들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천적 통찰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하우어워스의 덕 윤리에서 습관의 의미와 역할

1. 아리스토텔레스와 습관

덕에 관한 스탠리 하우어워스의 접근은 인간 삶의 체화된 본질을 적절히 다루지 못한다는 점에서 세속적 도덕 이론들, 특히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학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했다.⁹⁾ 하우어워스에 따르면, 칸트 윤리학은 개인의 삶의 특수한 맥락과 특수성으로부터 추상화된 보편적 도덕 원칙과 의무에 초점을 맞춘다.¹⁰⁾ 하우어워스는 이에 반대하며 도덕적 행위성이 인간을 형성하는 물리적, 사회적, 공동체적 현실로부터 분리된 채 옳고 그름에 대한 합리적 숙고로 환원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윤리

9) Stanley Hauerwas, *The Peaceable Kingdom: A Primer in Christian Ethics* (Notre Dame, IN: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3), 20.

10) Stanley Hauerwas, *Working with Words: On Learning to Speak Christian* (Eugene, OR: Wipf and Stock Publishers, 2011), 207.

학이 필연적으로 개인의 체화와 공동체 참여에 영향을 받는 인격 형성과 깊이가 연결되어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초기 연구, 특히 『성품과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우어워스는 도덕 형성에 관하여 중심적인 개념으로서 성품을 강조하며 도덕 주체에 집중한다.¹¹⁾ 그는 육체와 의지에 대한 이분법적인 분리를 펼치는 현대 도덕 이론들을 비판하며, 이러한 분리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체화된 주체자들이라는 현실을 가린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성품과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행위와 행위 주체에 초점을 맞췄던 것이 오히려 자신이 비판하고자 했던 이원론을 재생산할 위험이 있었다고 인정한다.¹²⁾ 또한 이 연구에서 “덕과 성품에 대해 논했지만, 덕의 형성에 필수적인 습관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자평한다.¹³⁾ 이러한 반성적 성찰을 바탕으로 하우어워스는 아리스토텔레스와 아퀴나스의 전통을 재해석하며 습관의 중요성을 새롭게 부각시킨다.

하우어워스가 『끝을 향하여』(Approaching the End)에서 제시하는 습관에 관한 이해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아리스토텔레스, 아퀴나스, 그리고 하우어워스 본인의 덕 이해다. 먼저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서 하우어워스는, 습관은 단순한 기계적 반복이 아니라 우리의 도덕적 삶을 구성하는 근본적인 요소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왜 도덕적이어야 하는가?”(Why should I be moral?)라는 질문에 “먹는 것을 좋아하는가?”(Do you like to eat?)라고 되물음으로써 우리의 기본적 욕구와 습관이 어떻게 도덕적 삶의 기초가 되는지 보여준다고 말한다.¹⁴⁾ 이러한 도덕 또는 덕이

11) Stanley Hauerwas, *Character and the Christian Life* (San Antonio: Trinity University Press, 1975); idem., *Character and the Christian Life*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5).

12) Stanley Hauerwas, *Approaching the End: Eschatological Reflections on Church, Politics, and Life* (Grand Rapids, MI: Eerdmans, 2013), 159.

13) Ibid., 160.

라고 하는 철학적 이성적 작업을 시작하면서 일상적인 질문과 비유를 활용하여 도덕과 습관의 의미를 탐구하는 것에 대해 하우어워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해를 빌려 인간의 합리성과 비합리성이 뚜렷하게 나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 비합리적 요소는 이성과 함께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합은 습관을 통해 이루어진다. 인간은 몸을 가진 존재이며, 먹는 것을 비롯한 다른 욕구가 수동적이거나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의미 있는 삶의 참여로, 즉, 그것이 공공 신학적이거나 사회 윤리적이 라는 등의 용어를 사용해서 분리되어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구분하고 정의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그러한 항목들을 포함하는 다른 사람들과의 중요한 관계들 속으로 우리를 끌어들이고 이끄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습관은 단순한 반복 이상의 것으로써 인간의 행동을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만든다. 하우어워스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반복적으로 행위를 통해 덕을 습득하고 이를 통해 덕 있는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핵심 주장은 습관과 덕의 발달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가 습관과 덕을 발달시킬 것인지 아닌지는 결코 문제가 되지 않으며, 어떤 종류의 습관과 덕을 발달시킬 것인지가 문제”라고 말이다.¹⁴⁾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하는 예들은 “말 타기나 레슬링을 배우는 것”과 같은 반복적인 신체 활동들이다. 이러한 반복을 통해 복잡한 행동이 “수월해”지는 과정은 도덕적 덕성의 습득과 유사하다.¹⁶⁾ 이러한 신체적 활동은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덕스러운 삶을 위한 기초적인 습관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의 이해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덕성의 획득이 기

14) Ibid., 158-9.

15) Ibid., 161.

16) Ibid.

술의 숙달과 유사하면서도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통찰이다. “유사한 행동이 유사한 덕성을 만든다”(like actions produce like virtues)는 그의 주장은 단순한 반복 학습이 그것 자체를 넘어서는 함의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⁷⁾ 기술자가 만드는 제품이 그 기술과 분리될 수 있는 것과 달리, 덕스러운 행위는 그것이 만들어내는 습관과 분리될 수 없는 “구성적”(constitutive) 관계에 있다.¹⁸⁾ 이 구성적 관계는 두 가지 측면을 말할 수 있다. 첫째, 기술(craft)과의 대비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¹⁹⁾ 기술자가 만든 제품은 그 기술자의 기술과 분리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목수가 만든 의자는 그 목수의 기술과 별개로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덕스러운 행동과 그로 인해 형성되는 습관은 이런 식으로 분리될 수 없다. “덕스러운 행동을 수행하는 것”과 “덕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은 서로를 구성하는 관계에 있다. 둘째,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 인과관계가 아니다. 인과관계가 원인과 결과의 분리 가능한 관계라면, 구성적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이루는 본질적 관계다. 앞서 언급한 “유사한 행동이 유사한 덕성을 만든다”라고 할 때, 이는 단순히 ‘A’라는 행동이 ‘B’라는 덕성을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라, 덕스러운 행동을 하는 과정 자체가 덕성의 일부가 된다는 의미다.²⁰⁾ 예를 들어, 용기 있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단순히 용기라는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 자체가 용기의 본질적 부분이 된다. 이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구성적 관계의 핵심이다. 이러한 하우어워스의 아리스토텔레스적 덕 이해는 덕목의 형성이 단순한 기술의 습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것임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17) Ibid.

18) Ibid.

19) Ibid. Cf., Aristotle, *Nicomachean Ethics*, trans. Terence Irwin (Indianapolis: Hackett, 1999), 1105a25-35.

20) Aristotle, *Nicomachean Ethics*, 1107a1-3.

이러한 구성적 특성은 신체적 존재인 인간이 도덕성을 체화하는 과정이 단순한 기계적 반복이 아닌, 전인격적 변화를 요구하는 또는 수반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이유로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의 형성에서 사회적 차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하우어워스는 이해한다. “입법자들이 시민들에게 덕목들을 훈련시키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 하우어워스는 개인의 덕의 형성과 발달이 공동체의 적극적 개입과 지원을 필요로 함을 확증한다.²¹⁾

제니퍼 허트가 지적한 “습관화의 신비”(the mystery of habituation)는 이 과정의 복잡성을 잘 보여준다.²²⁾ 어린이들의 초기 습관 형성은 덕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부모와 같은 권위자가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라는 이유로 아이들이 그 지시를 따르는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도덕적 이해로 볼 수 없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것이 바로 모방이다. 인간의 “본능적인 모방 욕구”는 덕 형성의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고 허트는 주장한다.²³⁾ 아이들은 처음에는 행동의 이유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덕 있는 인물을 모방하면서 배우게 된다. 덕스러운 행동을 모방하는 이 과정은 초기에는 외부의 권위나 습관에 의해 동기부여 되지만, 점차 도덕적 행위자의 성품과 욕구에 부합하는 내재화된 덕, “확고하고 변함없는 성품”으로 전환된다.²⁴⁾ 허트의 설명에 따르면 모방은 단순한 복제가 아니라 덕성의 내면화를 위한 중요한 단계다. 물론 진정한 덕이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변화를 요구한다는 점도 강조한다. 진정한 덕은 단순히 덕스러운 행동을 수행하는 것을 넘어, 사

21) Hauerwas, *Approaching the End*, 161. Cf., 1103b1-25.

22) Ibid., 162. Cf., Jennifer Herdt, *Putting on Virtue: The Legacy of the Splendid Vic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8), 25; Jennifer Herdt, “Hauerwas among the Virtues,” *Journal of Religious Ethics*, 40:2 (2012), 209, 222.

23) Hauerwas, *Approaching the End*, 162.

24) Ibid. Cf., Herdt, *Putting on Virtue*, 26; Aristotle, *Nicomachean Ethics*, 1105a-10.

랑하는 인물을 본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와 기쁘게 덕을 실천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왜냐하면 인간의 정서적, 관계적 차원의 중요성 또한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하우어워스는 허트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습관이 매우 큰 차이를 만든다”는 주장에 동의하면서도 동시에 이것으로 습관이 덕스러운 행위로 전개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 충분하지 못하다고 말한다.²⁵⁾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하우어워스는 아퀴나스의 습관 이론으로 논의를 확장한다. 비록 아퀴나스의 이론이 덕 함양에 필요한 습관들의 종류에 대한 강조와 관련된 모든 질문들에 답할 수는 없겠지만 하우어워스가 볼 때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작업을 바탕으로 습관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다.

2. 아퀴나스와 습관화

하우어워스에 따르면, 아퀴나스에게 있어서 습관이란 인간 행위를 합리적 및 비합리적 능력과 일치시키는 성향이다. 이 습관을 통해 덕의 형성에서 이성과 의지의 상호 의존성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퀴나스는 『신학대전』의 ‘제1-2부’(I-II)에서 “습관론”(Treatise on Habits)을 전개한다.²⁶⁾ 이 “습관론”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습관에 관한 설명뿐 아니라 덕목의 개별성과 상호연관성, 성령의 역할, 그리고 죄와 악덕의 본성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하우어워스는 “악덕 또한 습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²⁷⁾ “습관론”이 사실상 아퀴나스가 이해한 그리스도인의 도덕 생활의 개요와 핵심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은

25) Ibid., 163.

26) Ibid., 163-164. Cf., Thomas Aquinas, *Summa Theologica*, trans. The Fathers of the English Province (Westminster, MD: Christian Classics, 1981).

27) Ibid., 164.

그에게 습관 또는 습관화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기늠할 수 있다.

또한 “습관론” 이전에 “최종목적론”(Treatise on the Last End)이 선행하는 점도 하우어워스는 주목한다. “최종목적론”은 인간이 비이성적 동물과 다른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는 인간이 “의지와 이성을 가진 존재로서 우리의 행동의 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²⁸⁾ 여기서 하우어워스는 아퀴나스가 말하는 “주인됨”(Mastery)이라는 단어에 주목한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일과 우리가 누구인지가 분리될 수 없는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²⁹⁾ 마치, 아퀴나스가 “지성적 덕과 도덕적 덕을 구분”하지만 두 덕이 “서로 분리될 수 없는 방식으로 습관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과 같다.³⁰⁾ 바로 이러한 능력이 인간으로 하여금 덕스러운 삶에 필요한 습관들을 획득할 수 있게 한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하우어워스로 하여금 습관의 이해에 있어 아리스토텔레스보다 아퀴나스를 더 의지하게 하는가? 하우어워스에 따르면,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없었던 “의지”(the will)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덕성 형성을 위한 습관 이론을 발전시켰다.³¹⁾ 의지는 “이성에 의해 인도되는 우리의 행동이 진정으로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는 이성적 욕구”이다.³²⁾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의지와 이성을 독립적인 능력으로 분리해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아퀴나스에 따르면 “이성의 행위와 의지의 행위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한다.³³⁾ 이성은 의지에 대해서 사고하고, 의지는 이성을 지향하려 하므로, 이성의 작용이 의지의 작용에 앞서기도 하며, 의지의 작용이 이성의 작용에 앞서기도 한다.³⁴⁾ 어떤 행

28) Ibid.

29) Ibid.

30) Ibid. Cf., Aquinas, *Summa Theologica*, I-II, 58, 2.

31) Ibid.

32) Ibid. Cf., Aquinas, *Summa Theologica*, I-II, 8, 1.

33) Ibid. Cf., Aquinas, *Summa Theologica*, I-II, 1.

위가 다른 행위에 선행할 때, 그 첫 번째 행위의 영향력이 그다음 행위에 도 계속 작용한다. 의지가 행위 할 때는 그 이전에 있었던 이성의 작용이 의지 안에 남아있어 영향을 미친다. 이성의 행위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의지와 이성이 서로 완전히 독립적이지 않고, 상호 침투하여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임을 보여준다. 즉, 순수한 의지의 행위나 순수한 이성의 행위는 존재하지 않으며, 항상 서로의 영향력이 남아있는 상태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아퀴나스의 습관에 관한 이해는 신체적이면서도 영적인 차원을 포함한다. 하우어위스는 아퀴나스를 따라 우리는 “영혼이 깃든 몸”(ensouled bodies)이라고 보면서, 습관이 단순히 신체적 행위의 반복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과 분리해 놓고 생각할 수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³⁵⁾ 아퀴나스는 살아있는 몸과 죽은 몸을 명확히 구분하며 그 기준을 영혼에 뭉으로써 몸을 살아 생동하게 하는 근본 원리가 몸에 깃들어 있는 영혼임을 명확히 한다. 여기서 영혼은 단순히 몸과 분리된 어떤 실체가 아니라 몸에 생명과 활력을 불어넣거나 또는 그런 작용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원리임을 의미한다.³⁶⁾ 즉, 영혼이 몸의 본질적 성격을 규정한다는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인간의 전체를 조직하는 것은 단순히 몸에 생명을 부여하는 것을 넘어서, 한 인간의 성품과 삶 전체를 구성하고 조직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퀴나스는 영혼이라는 언어를 사용하지만, 이것은 몸과 분리될 수 없는 개념이다. 아퀴나스에게 영혼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로서의 교제를 나누기를 욕망하도록 운명 지어진 육체적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³⁷⁾ 따라서 그는 이성을 “이성적 욕망”으로, 의지를 “욕망하는 이성”으

34) Ibid. Cf., Aquinas, *Summa Theologica*, I-II, 4, 4, ad 2.

35) Ibid., 165.

36) Ibid., 165-66. Cf., Aquinas, *Summa Theologica*, I-II, 18, 5 ad 1.

37) Ibid., 165.

로 이해한다.³⁸⁾ 그에게 영혼은 신체와 함께 작용하는 실재다. 이러한 이해는 이성과 욕망의 이분법을 넘어선다.

이러한 욕망과 습관화의 관계에 관한 이해를 깊게 하는 것은, 하우어워스에 따르면, 아퀴나스의 “정념”(passions) 개념이다.³⁹⁾ 정념, 즉 인간의 감정적이고 감각적인 욕구가 덕의 발달과 연결될 수 있는 감정적 에너지라는 것이다. 아퀴나스는 이것을 첫째, “욕구적 정념”(concupiscible passion)과 둘째, “분노적 정념”(irascible passion)으로 나눈다.⁴⁰⁾ 욕구적 정념에는 기쁨, 슬픔, 사랑, 증오와 같이 선과 악을 바라보는 감정들이 있고, 용기, 두려움, 소망 등과 같이 획득하기 어렵거나 피하기 힘든 선과 악을 바라보는 감정이 분노적 정념이다. 아퀴나스는 이를 통해 정념이 단순히 억제해야 할 부정적 요소가 아닌, 올바르게 형성될 때 덕을 지지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켄트 더닝턴의 “습관은 욕망의 전략”이라는 언급은 이러한 관점을 뒷받침한다.⁴¹⁾ 정념을 단순히 감정적인 반응으로만 보는 것, 또는 덕을 위해 정념을 억제하거나 제거해야 한다는 스토아 철학의 입장이 아니라, 덕의 습득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전략적 요소로 인식하는 것이다. 하우어워스에 따르면 아퀴나스가 인간을 “사랑에 의해 운명지어진 몸”으로 볼 때, 인간을 단순히 감정적 존재로 보지 않는다. 인간의 몸과 정신, 수동과 능동을 통합한다. 즉, 정념이 감정적 동요가 아니라 도덕 성장의 요소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절제나 용기 같은 도덕적 덕목들이 정념의 움직임을 활용하여 형성된다.

아퀴나스에게 있어서 습관은, “어떤 것이 잘 또는 나쁘게 배치되도록

38) Ibid.

39) Ibid.

40) Ibid., 167.

41) Ibid., 166 n.21. Cf., Kent Dunnington, *Addiction and Virtue: Beyond the Models of Disease and Choice*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2011).

하는 성향이며, 이는 자신이나 다른 것과 관련하여 그러하다; 그러므로, 건강이 하나의 습관인 것”처럼 습관은 변하지 않는 특질을 가진다.⁴²⁾ 습관은 성향 또는 기질(disposition)에는 없는 “지속성”(lastingness)을 가진다. 이러한 지속성은 행위자와 행위 모두를 선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수행된 행위들과의 관계에서 비롯한다. “목적에 향한 의도는 수단을 향한 의지와 같은 움직임”이라는 아퀴나스의 주장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이 추구되는 목적의 구성적 부분임을 보여준다.⁴³⁾ 수단과 목적이 분리될 수 없다는 말이다. 이것은 어떻게 “동의”(consent)가 행위의 중심이 되는지, 즉 왜 사람들이 자신이 내린 판단과 결정을 승인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설명한다.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를 단순히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승인하고 받아들여야 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정의의 덕은 정의로운 행위를 할 준비된 의지를 줄 뿐만 아니라 정의롭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 사람을 정의롭게 만든다.”⁴⁴⁾

아퀴나스는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덕의 체계를 구축한다. 그는 덕을 획득된 도덕적 덕과 주입된 신학적 덕으로 구분한다. 용기, 절제, 정의, 실천적 지혜와 같은 획득된 덕목들은 이성으로 파악 가능한 목적을 위한 것이다. 반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신학적 덕목들은 인간의 자연적 능력을 초월하는 하나님과의 친교라는 궁극적 목적을 위한 것이다.⁴⁵⁾ 이러한 아퀴나스의 이해는 단순한 행위의 반복이나 기술의 습득을 넘어서는 통합적이고 전인격적인 덕 윤리의 체계를 보여준다. 도덕적 덕은 실천적 지혜 없이 존재할 수 없고, 실천적 지혜는 도덕적 덕목 없이 존재할 수 없다. 습득한 덕목은 주입된 덕목으로서의 사랑(charity) 없이 완전한 덕

42) Ibid., 167. Cf., Aquinas, *Summa Theologica*, I-II, 49, 1.

43) Ibid., 169. Cf., Aquinas, *Summa Theologica*, I-II, 12, 4.

44) Ibid., 170.

45) Ibid., 171.

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주입된 덕목들만이 우리를 궁극적 목적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우정의 관계로 인도하기 때문이다.⁴⁶⁾ 그러나 이것이 습관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주입된 덕목들과 획득된 덕목들의 분리와 간극을 강조하는 것도 아니다. 셰릴 오버마이어가 지적하듯이 주입된 덕목들은 “획득된 덕목들만이 제공할 수 있는 것, 즉 올바른 행위에서 오는 즐거움이 부족”하다.⁴⁷⁾ 주입된 덕목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주어지는 것이지만 실제 삶에서 덕목을 실천하며 얻는 기쁨과 만족 또한 덕 형성에 필수적임을 의미한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획득하는 자연적 습관들이 초자연적으로 주입된 습관들의 “근사치”(approximations)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인간의 자연적 노력과 신적 은총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모든 덕목은 결국 “성령의 은사”를 통해 자연적 한계를 초월해야 함을 의미한다.⁴⁸⁾

하우어워스에 따르면, 아퀴나스는 이러한 덕 형성을 여정의 개념으로 이해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여정에 있는 나그네”이며, 이는 덕 형성이 결코 완성되지 않는 지속적인 과정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퀴나스는 덕의 진정성과 외양의 구별을 구별한다. 예를 들어, 인색한 사람의 절제는 진정한 덕이 아닌 외양에 불과한데, 이는 그것이 재산 손실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절제의 습관을 획득했다 하더라도 그 습관들이 더 결정적인 삶의 방식에 의해 형성되지 않는다면 덕이 아니라 덕처럼 보이는 것일 수 있다는 말이다. 재산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 결정된 실천적 지혜와 절제의 습관은 진정한 덕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덕목들이 다른 덕목들을 “일종의 넘침으

46) Ibid.

47) Ibid. Cf., Sheryl Overmyer, *The Wayfarer's Way and Two Guides for the Journey: The Summa Theologiae and Piers Plowman*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2010), 91; Aquinas, *Summa Theologica*, I-II, 51, 4.

48) Ibid.; idem., *Working with Words*, 225.

로 특징짓는” 방식으로 덕을 위한 습관들을 획득해야 한다. 실천적 지혜가 다른 모든 덕목들로 넘쳐흐르듯이, 각각의 덕목은 다른 덕목들로 넘쳐 흘러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는, “절제는 용기가 절제로 넘쳐흐름으로 인해 용감하다고 일컬어지는데, 이는 죽음의 위험이라는 매우 어려운 문제에 대해 용기로 마음이 강화된 사람이 쾌락의 공격에 대해서도 더 굳건히 견딜 수 있기 때문이다.”⁴⁹⁾ 아퀴나스에게 있어서 덕목들은 앞서 설명한 복잡하고 체화된 행위들을 통해 반복적으로 육성될 때 “제2의 본성”(second nature)처럼 자연스러운 것이 된다.⁵⁰⁾

3. 소망의 습관

하우어워스는 습관과 덕이 본질적으로 소망을 내포한다고 주장하며, 덕 윤리를 도덕적 삶을 지속할 뿐만 아니라 소망의 미래로 사람들을 이끄는 실천으로 위치시킨다. 하우어워스에게 덕목들은 정적인 성질이나 가치가 아니라, 삶의 도전과 불확실성을 헤쳐나가는 역동적이고 적극적인 습관이다. 이 중심에는 소망 또한 습관으로서 이해하는 그의 통찰이 담겨져 있으며, 이는 과거의 불일치와 실패를 이겨내기 위해 소망과 용기와 같은 덕목들이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하우어워스의 “소망 또한 습관이다”라는 주장은 덕목이 특정 공동체 안에서 반복되는 행동을 통해 형성된다는 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⁵¹⁾ 하우어워스에게 소망은 단순한 수동적 기대가 아니라, 현재와 적극적으로 관계 맺으며 미래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는 소망과 같은 덕목은 인간이 신실하게 사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며, 이는 개인을 하나님의 지속적인 구속의 역사에 열려 있는 삶으로 지

49) Hauerwas, *Approaching the End*, 172. Cf., Aquinas, *Summa Theologica*, I-II, 61, 5.

50) Ibid.

51) Ibid., 175.

향하게 한다고 본다.⁵²⁾ 이러한 덕목들이 올바르게 함양될 때, 인간이 하나님과 공동체의 변혁적 활동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넘어 성장할 수 있다는 신뢰에 기초하여 도덕적 삶에 대한 미래 지향적 비전을 제공한다. 따라서 소망은 단순한 감정이나 추상적인 신학적 개념이 아니라, 기독교 공동체의 일상 속에서 습관으로 구체화된 실천이다.

이 비전에서 하우어워스는 소망을 용기와 같은 다른 덕목과 연결하여, 이들이 함께 작용해 개인이 과거의 도덕적 실패와 불일치를 넘어서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이끈다고 설명한다.⁵³⁾ 예를 들어, 도덕적 삶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두려움에 맞서기 위해서는 용기의 함양이 필요하며, 소망은 성장과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미래를 상상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덕은 도덕적 삶에 필수적이며, 현재 상황이 벅차 보일 때에도 덕스러운 삶에 대한 헌신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개인에게 부여한다. 소망과 용기에 부합하는 습관의 형성을 통해 기독교인들은 복음의 변혁적 힘을 증언하는 삶을 살도록 힘을 얻는다.

하우어워스의 신학적 윤리는 덕 형성 과정이 단순히 도덕적 탁월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한다. 덕은 기독교 공동체를 정의하는 실천과 관계에 의해 지속되며, 그 안에서 개인은 하나님과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음을 끊임없이 상기하게 된다.⁵⁴⁾ 특히, 소망은 불확실성과 고난 속에서도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미래 약속을 향해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하는 습관으로, 기독교적 삶을 지탱한다.⁵⁵⁾ 이러한 지

52) Stanley Hauerwas and Charles Pinches, *Christian among the Virtues: Theological Conversations with Ancient and Modern Ethics* (Notre Dame, IN: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97), 121.

53) Ibid.

54) Ibid., 123-24.

55) Hauerwas, *Approaching the End*, 175.

속적이며 공동체적인 과정으로서의 덕 형성의 이해는 현대의 개인주의와 이에 연결된 도덕적 판단의 공통된 기반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도덕적 분열에 저항하는 윤리학의 소망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하우어워스는 기독교 공동체의 관계적인 실천들에 덕의 기초를 뒀으로써 체화되고 소망적인 윤리의 틀을 제시한다. 따라서 덕은 단순히 개인적인 도덕적 성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반영하는 구체적인 삶으로 개인들을 이끄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실현하는 공동체로의 참여에 관한 것이다.⁵⁶⁾

III. 소망의 습관으로 살아가기

하우어워스의 덕 윤리에서 은혜의 역할이 부재하다는 비판은 앞서 설명한 하우어워스의 습관 개념에 대한 이해를 통해 새롭게 평가될 수 있다. 하우어워스의 습관 이해는 은혜와 실천의 이분법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가 말하는 습관은 은혜의 작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습관적 행위를 통해 작용하며, 이러한 습관의 형성 자체가 은혜의 방식이라는 하우어워스의 주장은 은혜와 실천의 통합적 이해를 보여준다.⁵⁷⁾ 문시영은 이러한 맥락에서 하우어워스의 덕 윤리가 “복음의 성품화”를 추구한다고 평가한다. “예수 내러티브를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러티브가 되게 해야 한다는 뜻에서, 기독교 덕 윤리가 추구하는 것은 복음의 성품화”라는 것이다.⁵⁸⁾ 이는 은혜가 추상적 원리가 아니라 구체적 습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을 형성한다는 하우어워스의 주장과 일치한다. 그래서 하우어워스는 “우리가 습관을 통해 행위 할 수 있는 존재가

56) Hauerwas, *Christian among the Virtues*, 122, 123-24

57) Hauerwas, *Approaching the End*, 171.

58) 문시영, “성품의 함양에 관한 덕 윤리의 통찰”, 154.

되며, 동시에 그 행위를 통해 새로운 습관을 형성한다”고 말한다.⁵⁹⁾ 즉, 은혜를 하나의 작용 원리나 기능으로써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습관의 시작과 마지막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은혜로 인해 습관은 우리의 도덕적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면서 동시에 그 행위의 결과이기도 한 것이다. 이것은 하우어워스가 “은혜의 역할”을 간과하거나 “참된 미덕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증생과 회심을 강조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짓기 보다는, 과거보다 더 복잡해진 현대 사회 속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복잡한 삶 속에서 은혜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그만의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⁶⁰⁾

은혜에 대한 하우어워스의 논지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아리스토텔레스를 가리켜 “은혜의 최악의 적”(the worst enemy of grace)⁶¹⁾이라고 비판한 것과는 다르게 이해해야 한다. 루터가 아리스토텔레스는 물론 그의 철학에 영향을 받은 토마스 아퀴나스를 포함한 스콜라주의 중세 신학자들을 향해 속임수를 행하는 “논쟁가들과 궤변가들”(the wranglers and sophists)이라고 비판한 것은 로마 가톨릭교회의 공로주의 때문이었다.⁶²⁾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고 그 자리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영향을 받은 사변적 신학과 그것으로부터 기인한 인간의 일과 공로에 대한 찬양이 차지했다는 것이다. 하우어워스도 이와 비슷한 평가를 받는

59) Hauerwas, *Approaching the End*, 175.

60) 전희준,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245; Hauerwas, *Christian among the Virtues*, 118-120, 121. 사실 하우어워스가 말하는 ‘실재의 측면에서 볼 때, 에드워즈가 말하는 증생과 회심에 준하는 정도의 심각하고 진정성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재가 전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Heejun Kim, “From Agent to Witness: Reading Stanley Hauerwas in the Korean Context,” *Toronto Journal of Theology* 38/1 (2022), 17-24.

61) Timothy F. Lull and William R. Russell, eds., *Martin Luther's Basic Theological Writings*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5), 36.

62) Lull and Russell, eds., *Martin Luther's Basic Theological Writings*, 100 n.2, 221, 478.

다.⁶³⁾ 하지만 하우어워스에게 중요한 것은 누군가의 철학, 또는 그 철학에 영향을 받은 사상가들과 그 대척점에 있는 또 다른 사상가들의 논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한다”이다.⁶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덕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그 어떤 주장도 하나님 앞과 동료 인간 앞에서 진실할 수 없음을 하우어워스는 밝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이 제기하는 하우어워스의 분과주의 비판에 대해, 하우어워스의 습관 개념은 대안적 관점으로 그의 신학적 윤리 작업을 살펴볼 것을 요청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습관을 강조하는 덕 윤리와 그에 따르는 성품의 형성이 은혜에 대한 강조를 약화시키고 종국적으로는 기독교 분과주의에 일조하는가? 하우어워스는 존 밀뱅크의 루터에 대한 평가를 소개하는 것으로 답을 대신한다.

“비록 루터는 믿음이 처음부터 습관(habitus)으로서 받은 것, 실행된 사랑임을 간과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놀라운 방식으로 모든 선한 일이 단지 믿음과 확신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확신을 가진 사람은 풍요를 믿으며, … 확신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 그는 결혼 생활을 위한 매뉴얼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자신의 확신으로 항상 선하고 독창적인 선행을 즉흥적으로 해낸다… 루터에게 있어 그리스도인의 선한 사람은 단순히 예술가와 같은 존재로서 모든 것의 완전한 창조자를 신뢰한다. 본질적으로 그의 메시지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그것과 같다: 예배의 덕이 없다면 어떤 덕도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예배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되돌리며, 아무것도 붙잡지 않고, 따라서 모든 유한한 축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항상 확신을 낳는다. 확신 있는

63) Stanley Hauerwas, *Sanctify Them in the Truth* (Edinburgh: T&T Clark, 1998), 41. 이 책 제2장 서두에서 하우어워스는 자신의 글에서 ‘하나님’이 빠져 있다는 나이젤 비거(Nigel Biggar)의 관찰 및 평가를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 참고로 제2장에서 하우어워스는 아퀴나스와 루터의 십계명 해석을 각각 분석하여 비교하고 있다.

64) Hauerwas, *Sanctify Them*, 59.

예배는 그것을 드리면서 받게 된다는 것을 알기에, 이 세상의 일시적 성격은 부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의 일시성은 선물로 복원되며, 그리하여 영원하게 된다. 오직 천국의 비전과 소망만이 우리를 사회적, 정치적으로 공정하게 만든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 반대로 생각하게 되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⁶⁵⁾

하우어워스는 습관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와 아퀴나스의 이해를 분석함으로써 현대 그리스도인을 위한 실천적인 윤리적 틀을 제시한다. 하우어워스가 설명하는 습관으로 형성되고 함양하는 덕목들, 특히 소망은 단순히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수동적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형성된 삶을 향해 현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⁶⁶⁾ 도덕적 분열로 특징지어지는 현대 세계, 즉 다양한 윤리 체계가 충돌하여 혼란과 불확실성을 초래하는 이 시대에, 습관으로써의 소망의 덕은 그리스도인에게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여 현재의 행동에 목적과 방향을 부여함으로써 도덕적 삶을 지속하게 한다.⁶⁷⁾ 하우어워스가 말하는 소망의 덕 윤리는 사회적 차이와 정의 등을 명시하기 위한 또 다른 그만의 틀을 제공한다. 특히 정의와 관련하여 특정한 덕 윤리가 개인의 도덕 형성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은 사회적·정치적 현실을 충분히 다루지 못한다는 비판과 덕 윤리가 다양한 사회 속에서 도덕적 삶을 구체화하는 사회적 차이와 구조적 불평등에 관여해야만 한다는 주장에 대해, 덕의 공동체적 본성과 신학적

65) Ibid., 64. Cf., John Milbank, *The Word Made Strange: Theology, Language, Culture* (Oxford: Wiley-Blackwell, 1997), 230-31.

66) Hauerwas, *Christian among the Virtues*, 127. 물론 하우어워스도 사랑을 가장 우선하며 도달할 덕목으로 꼽는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각 덕목들은 구별하여 논의할 수 있을지언정 독자적이거나 고립된 채 실제하지 않는다.

67) Ibid. “공포는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부여된’ 사랑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죄 가운데서도 의롭게 하실 때 사랑으로 시작된다. ... 소망은 또한 사랑으로 끝난다. 그것이 창조한 모든 것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랑으로 말이다.”

덕목들에 대한 하우어워스의 집중은 내재적으로 관계적이며 정의 지향적인 것으로서의 윤리적인 삶의 틀을 잡음으로써 이러한 비판들에 답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이 틀에서 덕목들은 기독교 공동체의 다양한 실천들을 통해 길러지고 지속된다.⁶⁸⁾ 하우어워스는 덕목들의 관계적이고, 현재 진행적이며, 신앙의 이야기 속에서 얻게 되는 성품을 강조함으로써, 현실적이며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은혜에 관한 소망적인 신학적 윤리를 주장한다. 이러한 윤리적 대안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삶을 형성하며, 복음의 소망을 반영하는 신앙을 살아내는 길로 초대된다.

IV. 나가는 말

스탠리 하우어워스의 덕 윤리는 아리스토텔레스, 토마스 아퀴나스, 알래스데어 매킨타이어 등의 덕 이해를 바탕으로 도덕적 삶의 복잡성을 헤쳐나가려는 기독교인들에게 뚜렷이 희망적인 틀을 제시한다. 고전적인 습관과 덕에 대한 강조를 기독교 신학적 믿음, 소망, 사랑 등의 신학적 덕목들에 대한 이해와 통합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하우어워스는 체화하며 공동체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윤리관을 제시한다. 특히 소망을 포함한 신학적 덕목들에 대한 그의 초점은 도덕적 삶의 방향을 개인적 완벽의 추구로부터 공동체적 신실함의 여정으로 재정향한다. 이로써 덕목들이 기독교 공동체와 실천의 맥락 안에서 함양되는 것을 밝히고 있다.

하우어워스에게 있어 덕 형성은 인간이 하나님 나라의 서사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지속적이고 공동체적인 여정이다. 이 여정은 도덕적 덕목들과 신학적 덕목들 간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으로 특징지

68) Myles Werntz, "Broadening the Ecclesiocentric Claim: Possible Futures for Christian Nonviolence," *Journal of the Society of Christian Ethics*, 39.2 (2019), 309.

어지며, 이는 기독교인이 인내와 용기, 사랑으로 삶 속에서 겪는 여러 형태의 도전들에 답할 수 있는 능력을 형성한다. 이 여정의 핵심은 신학적 덕목들이며, 하우어워스는 소망의 덕목을 강조한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을 하나님이 약속한 미래로 이끌어가는 덕목으로서 도덕적 불일치와 실패 가운데에서 그들을 지탱하며, 궁극적 목적인 하나님과의 우정을 항상 그들의 시야에 두게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우어워스의 덕 윤리는 미래 지향적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로 들어오고 있으며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삶과 행동을 통해 그 변화에 참여하고 있다는 소망에 근거한다. 소망은 덕의 지평이 되어 기독교인들이 궁극적 목표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현재를 신실하게 살 수 있게 하는 빛이 된다. 이러한 소망을 통해 하우어워스는 그리스도인의 덕스러운 삶에 대한 설득력 있는 비전을 제시하며 이것은 정적인 성취와 완료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속적이고 변화시키는 은혜의 사역에 신실하게 참여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하우어워스의 덕 윤리는 오늘날 한국 신학계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국 사회가 직면한 윤리적 도전과 도덕적 혼란 속에서, 덕 윤리가 제시하는 공동체적 희망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줄 수 있다. 덕 윤리를 통해 형성되는 소망은 개인의 구원에 국한되지 않고, 공동체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실천적인 윤리적 삶으로 이어지는 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다. 따라서 하우어워스의 덕 윤리는 한국 신학계와 교회가 신앙과 윤리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의 길을 제시하며, 소망의 덕은 그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덕 윤리는 단순한 윤리적 규범을 넘어, 미래의 소망 속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형성하는 힘이 된다.

참고문헌

- 문시영. “고통의 문제에 대한 덕 윤리의 통찰 - 하우어워스를 중심으로.” 『장신논단』 52,5 (2020), 131~152.
- _____. “성품의 함양에 관한 덕 윤리의 통찰: 하우어워스를 중심으로.” 『신학과 사회』 35/1(2021), 139~168.
- 전희준.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스탠리 하우어워스와 조나단 에드워즈의 덕 윤리에서 은혜의 역할 비교,” 『역사신학논총』 44(2024), 214~253.
- 최용성, 김혜성. “스탠리 하우어워스의 덕윤리학과 그 성취와 한계,” 『철학연구』 154(2020), 225~256.
- Aristotle. *Nicomachean Ethics*. Trans. Terence Irwin. Indianapolis: Hackett, 1999.
- Cavanaugh, William T. and Peter Manley Scott, eds. *The Wiley Blackwell Companion to Political Theology*, 2nd edition. London: Wiley Blackwell, 2019.
- Davidson, Donald. “Three Varieties of Knowledge.” In *Subjective, Intersubjective, Objective: Philosophical Essays*, 205~20.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 Dennett, Daniel C. “Mid-term Examination.” In *The Intentional Stance*. Boston: MIT Press, 1987.
- Dunnington, Kent. *Addiction and Virtue: Beyond the Models of Disease and Choice*.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2011.
- Hauerwas, Stanley. *Character and the Christian Life*. San Antonio: Trinity University Press, 1975.
- _____. *Character and the Christian Life* 2nd ed.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5.
- _____. *The Peaceable Kingdom: A Primer in Christian Ethics*. Notre Dame, IN: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3.
- _____. *Christians Among the Virtues: Theological Conversations with Ancient*

- and Modern Ethics*. Notre Dame, IN: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97.
- _____. *Sanctify Them in the Truth*. Edinburgh: T&T Clark, 1998.
- _____. *Working with Words: On Learning to Speak Christian*. Eugene, OR: Wipf and Stock Publishers, 2011.
- _____. *Approaching the End: Eschatological Reflections on Church, Politics, and Life*. Grand Rapids, MI: Eerdmans, 2013.
- Herd, Jennifer. *Putting on Virtue: The Legacy of the Splendid Vic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8.
- _____. "Hauerwas among the Virtues." *Journal of Religious Ethics*. 40:2 (2012), 202-227.
- Kim, Heejun. "From Agent to Witness: Reading Stanley Hauerwas in the Korean Context." *Toronto Journal of Theology* 38/1 (2022), 17-24.
- Lander University. "The Principle of Charity." 최종접속일 [2024.12.10]. <http://philosophy.lander.edu/oriental/charity.html>.
- Lull, Timothy F., and William R. Russell, eds. *Martin Luther's Basic Theological Writings*.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5.
- Overmyer, Sheryl. *The Wayfarer's Way and Two Guides for the Journey: The Summa Theologiae and Piers Plowman*.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2010.
- Reno, R. R. "Stanley Hauerwas," in *The Wiley Blackwell Companion to Political Theology*, 2nd edition, ed. William T. Cavanaugh and Peter Manley Scott. London: Wiley Blackwell, 2019.
-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Donald Davidson: Principle of Charity."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최종접속일 [2024.12.10]. <http://plato.stanford.edu/entries/davidson/>.
- Thomas Aquinas. *Summa Theologica*. Trans. The Fathers of the English Province. Westminster, MD: Christian Classics, 1981.
- Wertz, Myles. "Broadening the Ecclesiocentric Claim: Possible Futures for Christian Nonviolence." *Journal of the Society of Christian Ethics*, 39:2 (2019), 303-318.

224 『기독교사회윤리』 제60집

논문투고일: 2024년 11월 15일

심사개시일: 2024년 11월 17일

게재확정일: 2024년 12월 09일

www.kci.go.kr

• 국 문 초 록 •

본 연구는 현대 기독교 윤리학의 대표적 학자인 스탠리 하우어워스의 덕 윤리, 특히 그의 습관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 학계에서의 수용과 적용 가능성을 고찰한다. 하우어워스는 아리스토텔레스, 토마스 아퀴나스, 알래스테어 매킨타이어의 영향 아래 성품, 서사, 공동체의 전통에 기반한 기독교적 덕 윤리를 발전시켜왔다. 그의 윤리학은 추상적 원칙이 아닌 구체적 공동체의 이야기와 실천을 통한 윤리적 삶의 형성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개인주의와 합리주의에 기반한 근대 계몽주의적 윤리 접근을 비판한다. 본 연구는 하우어워스의 덕 윤리적 사상에서 습관 개념이 현대 기독교 윤리학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분석하고, 이것이 신앙 공동체의 실천 속에서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는지 탐구한다. 이를 통해 한국 신학계에서 덕 윤리에 대한 보다 폭넓은 논의와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스탠리 하우어워스, 덕 윤리, 습관, 아리스토텔레스, 토마스 아퀴나스, 소망
